

일본 정부의 섬유 패션 산업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관한 좌담회 <1/4>

2008년 하반기에 돌발한 리먼 쇼크(Lehman shock) 이후로 일본도 세계적인 불황을 맞게 되면서 ‘향후 섬유 패션 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연구회’를 만들고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는 섬유 비전(纖維 vision)을 다시 검토해 왔다. 2010년 3월에 이 연구회의 보고서가 공표되었는데, 요점은 ‘내수로부터 외수로의 전환, 업계의 제휴·통합, 톱 러너(top runner) 분야의 강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정하였는데, 이들의 골자는 이미 ‘산업 구조 비전(産業 構造 vision) 2010’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섬유 산업은 많은 과제가 산적(山積)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와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산관(産官) 3분의 의견을 들어 요약하였다. 좌담을 하신 분은 경제 산업성 제조 산업국 섬유 과장(經濟産業省 製造産業局 纖維課長)과 도요다 통상 집행 역원 생활 산업 자재 본부장 보좌 오사카 지점장(豊田 通商 執行 役員生活 産業 資材 本部長 補佐 大阪 支店長) 그리고 일본 섬유 산업 연맹 부회장(日本 纖維 産業 聯盟 副會長)이다.

◎ 산지가 사라지겠다는 위기감까지 주는 국제 환경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는 첫머리에 ‘내수에 의존하려는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고 방향을 정하고 제휴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휴나 통합은 수십 년 전부터 거론해 오고 있는데 다만 그들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달라지고 있다. 의류와 산업 자재는 다른 것이며 두 개가 모두 다른 뜻에서 제휴와 통합이 필요하다. 의류 패션 산업은 마켓 인(market-in : 日英語 생산 부문이 판매 부문을 끌어들여 시장 정보에 따라 생산하여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소비자에 가깝게 있어야 하고 세로 방향으로의 제휴가 중요하다. 산지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 산업 자재는 그다지 주목되고 있지 않으나 원재료로서의 섬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유저도 잘 알지 못한 때가 많았다. 서로 다른 분야인 의류와 산업 자재를 각

각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는 사업자간에 제휴하여 서로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것에 달렸다. 유저와 메이커의 콜라베레이션(collaboration : 協業), 제휴와 통합으로 시즈(seeds)와 니즈(needs)를 어떻게 매칭(matching : 조화)시켜 나가느냐, 다만 통합이라면 기업 합병 같아서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로의 합병만이 아니고 세로의 합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회에서는 상당히 깊은 문제까지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업계의 위기감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섬유 과장은 2010년 4월까지 아이치현(愛知縣)의 산업 노동부장으로 있었는데, 이치노미야(一宮)의 모직물 산지에서는 근 2년 전부터 “이대로 가면 산지가 사라지겠다. 마지막 기회에 무엇을 해볼 수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지금 섬유 과장이 되어 일본 전체를 봐도 똑같은 상황이다. 섬유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산지는 없어질 것이다. ‘풀 셋(full set : 테니스 등에서 마지막까지 시합을 함)’의 산지가 없어지면 섬유 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 20세기가 끝나갈 때 이야기되었던, 마지막 기회(last chance)라고 한지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다른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섬유만이 실속감(失速感 : 발전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커지고 마침내 2009년경부터 산지의 풀 셋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염색 정리(染色 整理)가 그랬다. 이치노미야에서도 하반신 부분이 약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7년에 책정된 현행 섬유 비전은 위기적인 섬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검토하고 종합하였는데, 리먼 쇼크 후 국제 환경 변화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이 연구회의 보고서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수출 금액을 8,000억 엔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장차는 안정적으로 1조 엔을 수출한다는 지표를 명확히 밝혔다. 섬유 공정의 상류와 중류에서 과제가 겹쳐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가로로 제휴함으로써 글로벌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섬산련(纖産聯)으로서도 새로운 각오로 확실하게 활동해 나가려 하고 있다.♣